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분별하려면, 혼자 스스로 분별하기는 어렵다. 성령의 감동 감화 하심과 성령이 어떤 것을 두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계시를 먼저 분별함으로 근본의 것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달아야 된다.
2. 분별하려면, ‘핵’ 과 ‘핵의 대상’ 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핵’ 과 ‘핵의 대상’ 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야, 그것을 사든지 얻어도 후회가 안 된다. ‘핵’ 이나 ‘핵의 대상’ 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든지 얻으면 후회하게 된다.
3.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할 때 그것이 성령의 뜻인지 잘 모르면, 성령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우쳐 주시며,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혹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시며, 이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우쳐 주신다.
4. 분별하려는 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을 보이며 깨닫게 해주시고, 안 좋은 것이면 안 좋은 것을 보이며 깨닫게 해 주신다.
5. 분별하려면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집이 있다고 하자. 집은 핵이고, 주변 환경은 대상이다. 집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또, 주변 환경은 좋고 집이 없으면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또, 주변이 좋지 않으면 활동을 못 하니 좋지 않다. 집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을 때 좋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다.

6.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두 가지가 갖추져 있어야 천국이다. 한 가지 갖추져 있으면 반(半) 천국이다.
7. 핵이 갖추져 있으면 속 천국이고, 대상만 갖추져 있으면 겉 천국이다. ‘핵’ 과 ‘핵의 대상’ 이 다 갖추져 있을 때 전체 천국이다.
8. 속만 갖추져 있으면 마음은 천국인데 환경은 지옥인 격이고, 겉만 갖추져 있으면 환경은 천국인데 마음은 지옥인 격이다.
9. 저울에 달아보고, 자로 재보고, 확인해 보면 분별이 나온다.